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인식·현황 조사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Status survey and Development about Bibliotherapy in Korea's LIS Fields

백 재 은 (Jae-Eun Baek)**

초 록

전통적으로 책과 독서에 강한 분야인 문헌정보학은 도서와 독서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상황·병리 증상 등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에 있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와 매우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진 문헌정보학 분야에 학문적·실천적 관점을 적용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및 현황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인식조사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관련 수업을 듣는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5개의 주제(도서, 독서치료, 교과과정, 도서관, 기타)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현황은 교육적·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과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독서치료 관련 교육과정 현황은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32개의 대학을 바탕으로 독서치료 관련 키워드를 통해 탐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동 현황은 국내 1,104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독서목록을 각각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독서치료 참여자와 운영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raditionally a strong field of book and reading, can be said to play a leading and central role in bibliotherapy that heals human emotions, situations, and pathological symptoms through books and reading process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bibliotherapy were investigated by applying an academic and practical perspective to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hich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bibliotherapy. First, the perception survey surveyed 200 students taking LIS-related classes at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five topics (books, bibliotherapy, curriculum, libraries, and others) using keywords related to bibliotherapy. And then, the current status of bibliotherapy in the field of LIS was investigated by dividing it into a curriculum related to bibliotherapy and bibliotherapy activities in the library to examine it from an educational and practical perspective. Bibliotherapy related curriculum status survey explored and analyzed through bibliotherapy related keywords based on 32 universities with LIS departments among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And bibliotherapy programs and reading lists were analyzed for 1,104 public libraries in Korea.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urveys, the direction for the activation and development of bibliotherapy in the field of LIS wa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bibliotherapy participants and operators.

키워드: 도서관, 독서치료, 독서치료 독서목록, 독서치료 프로그램,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인식조사
Library, Bibliotherapy, Bibliotherapy Catalogue, Bibliotherapy Program, LIS Curriculum, Perception Survey

* 본 연구는 2021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aeunb@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371-395,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371>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오늘날 현대인은 급변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 질병 등에 의해 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단절, 고립, 불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래되면서 새로운 행태, 정서, 상황 등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자살률·우울증 증가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이 표면화되면서, 현대인은 정서적·심리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는 개인 심리학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본인이 스스로 치유 가능한 자가치료가 알려지면서, 도서관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치료'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참여자와 참여자의 문제, 그에 관한 치료적 요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김세영, 2020), 독서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상담자, 사서와 같은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한다. 참여자는 독서를 진행하면서 책의 인물, 상황 등에 자신을 투영하고 동일시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통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김순화, 2004), 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문제, 심리 등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다. 독서치료에 있어 도서와 독서는 치료적인 요소와 과정을 지니고 있기에(김세영, 2020), 치유를 위한 매개이자 필수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책과 독서에 강한 분야인 문헌정보학(김현숙, 강보라, 2020)은 도서와 독서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상황·병리 증상 등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에 있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

보학 교과과정에서는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지식과 정보 전달을 지속화하고, 도서관에서는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토대로 독서 치료를 위해 도서를 선정 및 개발하고 독서목록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더욱이, 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이기명, 이제환, 2011), 많은 도서관에서는 관련 프로그램과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20세기 중반부터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과 함께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황금숙, 2005),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부터 실전적으로 도서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형이 개발되면서 도서관에 수용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김정근, 2005). 이와 함께, 도서관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교육 주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에도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도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다(이제환, 2009). 그러나 최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교과목으로서 독서치료는 전공선택 과목(정보조사제공학) 가운데 필요도가 낮은 과목에 포함되었고(홍현진 외, 2021), 독서치료의 영향력도 독서 연구 분야 동향에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김현숙, 강보라, 2020). 독서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가운데 부분적이지만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의 활성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현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학문적이자 실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

진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관점에서 독서치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독서치료를 주제로 진행한 조사는 우선, 문헌정보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인지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독서치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적 관점과 실질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검토하였다. 교육적 관점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을 통해서, 실질적 관점은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동(프로그램과 독서목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각도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독서치료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은 독서치료와 도서관에 관한 이론적 배경,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독서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나열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치료와 도서관

2.1.1 독서치료의 정의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책과 문학을 의미하는 ‘biblion’(혹은 ‘biblio’)과 치료하다를 표현하는 ‘oepatteid’의 조합어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다. 한국에서 독서치료는 1964년 국회도서관법 제1권에서 ‘도서관과 비브리오테라피’가

발표되면서 최초 소개되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연구 진행되다가(김수경, 2010), 2000년 이후 사회적 요인과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되면서 많은 연구와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독서치료의 개념과 정의는 적용되는 학문 분야에 따라 용어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독서치료와 학문적·교육적인 관점, 실천적인 관점에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개념을 기술하였다.

우선, ‘문헌정보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헌정보학은 도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수집, 축적, 유통, 가공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전문적으로 학습 및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함의를 담고 구성된 문헌정보학의 사전에서 독서치료의 정의를 살펴보면,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는 독서치료를 “정신적·정서적 장애와 사회적 부적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직접적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보조물로, 다른 읽기 자료와 도서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것”(Young, 1983)이라 기술하였고, ODLIS(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정신질환이나 정서장애로 고통받는 환자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자인한 독서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콘텐츠에 근거하여 선정된 도서를 이용하는 것(Reitz, 2014)’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국내 사서를 위한 전문 커뮤니티 LISTOPIA(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topia)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2011)

에서는 독서치료가 아닌 독서치료와 동일한 의미로 ‘독서요법’을 활용하여 “독서요법은 정신 건강상 또는 신체 의학상 치료를 목적으로 독서를 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들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의를 취합하여 정리해보면,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는 독서요법¹⁾과 동일한 의미로 동시 사용되고 있으며, ‘도서(정보자원)를 활용한 독서를 통해서 정신·심리 장애를 지닌 독서치료 참여자의 심리적·정서적 상처 및 문제 등의 치유를 가능하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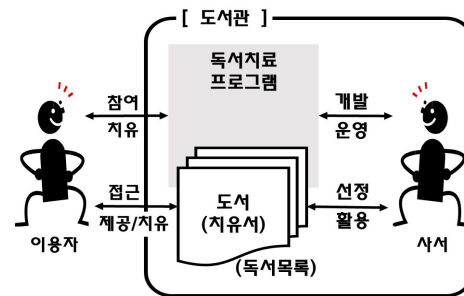
2.1.2 도서관과 독서치료

20세기부터 독서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황금숙, 2005) 각종 사회적 문제의 발생과 함께 현대인의 심리·정서치유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도서관에서도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독서치료는 참여자(대상), 도서(활용 도구), 독서(행위)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는 독서라고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스스로 치유자가 되고, 도서는 참여자의 문제·상처 등의 치유를 도와주는 중요한 필수 도구로 활용된다(백재은, 2016). 이와 같은 독서치료의 구성요소이자 핵심 요소는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이용자(독서치료 참여자)와의 면담, 독서치료의 필수요소이자 매개의 주된 역할을 하는 정보자

원 도서 제공,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자료의 지속적인 제공 등(이기명, 이제한, 2011)으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는 기본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혹은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고(이기명, 이제한, 2011), 이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의 구성원인 사서가 주도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독서치료 독서목록²⁾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정규 서비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이제한, 2009). 이처럼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동은 독서치료 참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독서치료의 효용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적 자원(도서, 독서목록, 프로그램 등)에의 접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서관과 독서치료의 상호관계

- 1) 독서요법은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와 같은 범주에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용어를 동일시하여 사용하였고, 독서치료를 주된 용어로 사용하였다.
- 2)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과 다르게 도서를 상황, 감정, 증상, 장애 등과 같은 키워드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주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남산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무안공공도서관, 광진 구립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다.

2.2 관련 연구

독서치료는 다양한 학문 분야(교육학, 문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아동가족학, 정신의학 등)에서 다방면의 연구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폭넓은 시각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독서치료 연구를 관련 연구이자 선행 연구로 살펴보고 나열하였다.

우선, 송승섭(2004)은 한 대학에서 '독서 교육심리' 수업을 듣는 12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현황조사(독서치료의 효용성, 자료 장르/매체의 선호도, 도서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 과목 개설의 적절성, 과목의 효용성 등)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독서치료 관련 연구 및 강의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은 문헌정보학의 특정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설문 조사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공되는 설문 항목의 구성 및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독서치료 관련 인식조사 접근 방식과 범주가 유사하여 과거와 현재 대학생의 독서치료 인식을 비교·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환(2009)은 한국 도서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서 주도의 독서치료 활동이 한국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 접근하여, 도서관에서의 독자 상담과 독서치료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도서관계의 상황을 각각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적 현상이 갖는 의미와 원인을 분석, 한국형 모델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 논문과 본 연구는 한국 도서관계라는 관점에서 독서치료에 접근하여 도서관 실무와 교육 분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공한 한국 독서치료의 특징들을 참고하여 독서치료의 현황조사에 적용하였다. 이와 유사 범주의 연구로, 김수경(2010)은 도서관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고, 이들이 가진 과제에 대한 방안을 4가지 관점(독서치료 용어의 문제,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수용, 독서치료 교육과 훈련 과제)에서 접근하여 나열하였다. 이 논문은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라는 접근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조사를 실행하였다. 특히 이 조사는 본 연구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조사 내용 및 결과(문헌정보학에서 독서치료의 교육 등)를 참조하여 발전 방향에 적용하였다.

이기명, 이제환(2011)은 독서치료의 지적 기반을 도서관 서비스인 독자 상담에 두고, 독자 상담 영역에서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현장에 독서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강구하였다. 특히, 미국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독자 상담과 독서치료의 연계성을 검토하였고, 치료적 독자 상담의 실천을 위해 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쾨들라우(Kuhlthau)가 제시한 중재 역할 모델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기술한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독서치료 위치, 사서와 도서관 서비스의 역할을 통해 도서관과 사서의 관점에서 독서치료를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 독자 상담과 독서치료의 상호관계, 도서관 서비스로서의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강보라(2020)는 지난 20년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10년 단위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의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회지에서 관련 논문 489편을 수집하고, 저자 키워드를 추출, NetMiner43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헌정보학계에서는 10년 단위로, 키워드가 '독서치료, 독서교육'에서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으로,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서 '이용자 맞춤형 독서 연구, 다양하고 세부적인 독서 연구'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연구와 전문적 학제적 연구,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공동연구 등의 필요성에 대해 나열하였다. 이 논문은 독서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독서치료가 독서 연구에 포함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기초 개념 부분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독서 연구의 발전 방향, 특히 학제적 연구라는 관점을 본 연구의 발전 방향에 참고하여 접목시켰다.

3. 독서치료 관련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를 학문 ·

교육적인 관점과 실전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조사로, 문헌정보학을 수학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현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일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문헌정보학과를 개설하여 운영 하는 수도권 소재 5개 대학(C대, D대, K대, S대, S대)에서 문헌정보학 수업³⁾을 수강하는 2~4학년의 200명 학생⁴⁾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독서치료와 관련된 5개 주제(도서, 독서치료, 교과과정, 도서관, 기타)로 총 14개의 문항을 작성 및 구성하여 질의하였다([부록 1] 참조). 본 조사는 100%의 참여율을 보여주었으나(〈표 1〉 참조),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거나 학습하는 대학생의 전체 의견이 아니기에 이점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하고자 한다. 이어서 다음에서는 주제별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나열하였다(〈표 2〉 ~ 〈표 6〉 참조).

〈표 1〉 독서치료 인식조사 대상 수

	전공자	비전공자	합계(명)
C대	53	5	58
D대	20	2	22
K대	46	0	46
S대	38	6	44
S대	30	0	30
합계	187	13	200

도서관은 독서치료에 있어 치료 도구이자 필수

3) 학생들이 수강한 수업은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어 제공하는 수업으로, 독서치료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데이터베이스 구축론 등이었다.
4) 문헌정보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명의 학생 가운데 전공자와 비전공자(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의 비율은 93.5%와 6.5%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소로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서치료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도서 혹은 독서가 대학생에게 치유서로서 충분히 작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주제 「도서」에서는 ① 대학생의 독서량, ② 도서에 의한 치유, ③ 치유서에 의 접근 경로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였다(〈표 2〉 참조).

우선, 대학생의 도서 활용도와 독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 대학생의 1년간 독서량을 설문한 결과, 전체 31%의 학생들이 4~7권을 읽는다고 답변하였고, 12권 이상을 읽는 학생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 이들 독서량과 무관하게 도서에 의한 치유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58%가 도서를 통한 치유 경험이 없다고 언급하였고, 치유를 경험한 학생들(41.5%)은 치유서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32.5%), 지인 추천, 서점, 광고의 순으로 얻었다고 표시했다. 치유를 제공한 도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앞서 ②번의 질문에서 치유를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서로 활용된 혹은 치유를 제공한 도서명을 추가 질

문하였고, 그 결과 총 70권의 도서⁵⁾를 수집하였다. 이들 도서의 유형으로는 에세이가 가장 많았고 이 외 소설, 수필/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 학문 및 주제 분야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에 관해 다루고 있었고, 자아, 자아 존중감, 자기 계발, 인생(청년)훈, 사고(思考) 등이 도서의 키워드로 부여되어 있었다.

2021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성인 평균 종합 독서량을 (종이책, 전자책·오디오 북)은 4.5권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학생들의 독서량과 비교하면 근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학생에게 독서에 의한 치유(경험)와 치유서의 역할 및 영향력은 아직 부족하고 미흡했으며, 치유서 관련 정보 습득 및 접근 경로의 경우 도서관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대학생의 독서치료의 인지도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두 번째 주제, 「독서치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3〉 참조).

우선, ④ 독서치료(혹은 독서요법⁶⁾)의 존재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반수의 학

〈표 2〉 독서치료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 도서

독서치료(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응답 비율(%)				
		1~3권	4~7권	8~12권	12권~	
①	학생의 1년 독서량을 선택해주세요.	25	31	24	20	
②	책으로 자신의 문제(정신/심리)가 치료된 적이 있다. (예로 대답한 경우, 도서의 서명을 적어주세요)	예		아니오		미답변
		41.5		58		0.5
③	치유/치료가 된 책에 대한 정보는 000에서 얻었다.	도서관	서점	추천	광고	기타
		32.5	25.5	27	13.5	1.5

5) 77권의 도서가 수집되었으나, 7권의 도서가 중복되어 있어 총 70권 도서가 최종 수집되었다.
6) 설문 조사에서 독서요법은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와 함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질문 사항에는 포함하였다.

〈표 3〉 독서치료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 독서치료

독서치료(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응답 비율(%)		
④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미답변	
	84.5	15.5	0	
⑤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에 대해 알고 있다.	예	아니오	미답변	
	39	61	0	
⑥ 치유서에 대해 알고 있다.	예	아니오	미답변	
	16.5	83	0.5	
⑦ 독서치료 도서목록에 대해 알고 있다.	예	아니오	미답변	
	8	91.5	0.5	

생(84.5%)이 독서치료에 관해 듣거나 접해본 적이 있다고 표기하였다. 이에 반해 ⑤ 독서치료의 기본정보 및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학생은 39%로, 앞의 답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 ⑥ 치유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학생은 더 낮게 16.5%로 나타났다. 이어서, 독서치료 진행을 위해 도서관(혹은 각종 기관)에서 개발 및 발행되는 ⑦ 독서치료 도서목록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독서치료와 치유서에 비해 더 낮은 수치로 8%의 학생만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는 ④번의 질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 이들 결과를 질문 ②, ③번의 결과와 비교하면, 비록 낮은 수치이지만 학생들은 도서로 치유 경험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독서치료, 치유서, 도서목록에 대한 정보와 기초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독서치료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전제로 학생들의 독서치료에의 접근 경로라고 볼 수 있는 「독서치료 교과과정」을 세 번째 주제로 살펴보았다.

「독서치료 교과과정」은 ⑧ 독서치료 학습 경험과 ⑨ 앞으로의 학습 기대를 조사하였다(〈표

4〉 참조). 우선, 독서치료와 관련된 또는 독서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룬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수는 매우 낮은 비율로 전체의 3.5%에 불과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과목명을 살펴본 결과 총 2개 과목으로, '장서구성론', '독서지도'가 수집되었다. 독서치료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경험, 미흡한 학습 경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⑨ 학습 관심도와 기대가 높아 독서치료 수업이 제공된다면, 학생의 과반수(80%) 수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⑧, ⑨번의 질문은 독서치료 교과과정에 관한 미시적 관점이지만, 낮은 수치로 표현되는 것은 현재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거나 독립적인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교육과정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지도 수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에 독서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학습 기회나 경로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도서목록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본 조사의 ④번의 질문으로 치유서 관련 정보를 도서관에서 주로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외 독서치료 정보

〈표 4〉 독서치료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 교과과정

독서치료(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응답 비율(%)		
⑧	독서치료에 관련된 수업(강의)을 수강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미답변
		3.5	96.5	0
〈수업을 들었다면 수강한 기관(수업)명을 적어주세요〉				
⑨	독서치료 관련된 수업(강의)을 수강하고 싶다.	예	아니오	미답변
		80	18.5	1.5

〈표 5〉 독서치료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 도서관

독서치료(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응답 비율(%)		
⑩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미답변
		0.5	99.5	0
⑪	도서관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오	미답변
		88	11.5	0.5
⑫	도서관에는 독서치료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오	미답변
		73.5	26	0.5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주세요〉				

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경로, 「도서관」을 다섯 번째 주제로, ⑩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⑪ 독서치료 활동의 일환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⑫ 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5〉 참조).

조사 참여 대학생들 가운데, ⑩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0.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 직접적인 경험은 거의 전무했으나,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표기한 학생은 전체 88%로, 많은 학생이 독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 및 지도하거나, 조력자이자 운영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높게(73.5%) 나타났다. 그래서 독서치료 전문 사서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의견을 추가

로 수집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작성한 견해는 크게, '사서의 전문성 활용', '도서관/사서의 기능·역할 확대', '사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다음에서는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주요 의견의 일부를 관점별로 살펴보고 나열하였다.

우선, '사서의 전문성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는

“책과 심리 치료학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색다른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를 잘 아는 전문가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도서관은 이용자 유치가 가능하다.”

“전문적으로 독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책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책과 사람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독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었고, 이어서 ‘도서관/사서의 기능·역할 확대’에서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사서 주도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를 이용자에게 쉽게 추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이용자로 하여금 더 믿음직한 치료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므로.”

“도서관이 자료 이용에서 접근으로, 이제는 활용 측면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에.”

“독서치료에 대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 이용자에게 무료(혹은 값싼 비용)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도서관의 역할이 책 제공뿐 아니라 문화 충족 및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독서치료 전문 사서를 두면 이용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

“도서관이 지역사회 혹은 소속된 공동체 복지를 생각해야 하기에.”

등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이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독서치료라는 것은 책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도서관의 활성화, 사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용자가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

“독서치료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가 전문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독서기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됨.”

“정신과에 갈 정도로 힘들지는 않지만, 때로는 건디기 힘든 사람들을 설 수 있게 도서관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취합된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고 조합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전문 사서’에 대해 정리해보면,

“도서관은 일반 이용자가 책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사서는 책과 사람을 직접 연결하고 독서를 전문 적으로 다루는 직업이기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독서치료 영역은 인간의 심리적·정서적 치료와 내적 치유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전문 사서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

로 기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주제는 독서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기타」 의견으로, ⑬

독서치료 경험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고 독서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⑭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다(〈표 6〉 참조).

대학생들의 독서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기대감을 질의한 결과, ‘독서치료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83%로, ②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치유를 경험한 학생 41.5%)보다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기한 학생도 전체의 17%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줬다. 이 결과로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교육 적인 부분뿐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에서도 독서치료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내적 치유를 받고 싶은 상황, 감정 등을 느낀 적이 있거나 현재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일부 추측할 수 있었다. 이어서 앞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계없이 독서치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견해를 묻고 들었다. 이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상 접할 기회가 없어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문정과에 수업이 없어 아쉽다.”

“전공 학생으로서 독서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병원에 가기 부담스러울 때 독서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배워보고도 싶고, 치유 경험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헌정보학에도 독서치료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전공수업에 독서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문 강사 등 독서치료를 전담하는 분이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독서치료 전문사서의 전문성이 꼭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상으로 한다면 장애에 관해 기본적인 정도는 알고 있는 사서였으면 좋겠다.”

“심리치료에 관한 부분은 워낙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분야의 사서를 육성하는 것보다 의학계에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 옳이나 잘못된 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치료에 대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다각도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호의적인 견해를 제공하였고, 일부 부정적인 관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 6〉 독서치료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 기타

독서치료(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응답 비율(%)		
		예	아니오	미답변
⑬	기회가 된다면,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을 경험해보고 싶다.	83	17	0
⑭	독서치료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무엇이든 작성하세요.			

본 장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수업을 학습하는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인식 설문 조사를 개괄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서를 통한 치유 경험, 독서 치료에의 교육적·실전적 접근 경로, 독서치료 관련 정보 및 지식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표시한 반면, 독서치료 관련 교육과정의 역할 및 필요성,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프로그램 및 전문 사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각각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독서치료에 관한 단편적인 조사이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조사 대상의 대학생들은 '독서치료'에 많은 관심이 있으나,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 독서치료가 아직 생소한 분야이자 용어이고, 실전적으로 독서치료에 접할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4장에서는 본 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서치료의 현황조사를 학문적·실전적 관점에서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살펴 보았다.

4. 독서치료 관련 현황조사 및 발전 방향 제안

3장의 인식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독서치료에 대한 기대와 달리 관련 정보 및 지식 전달과 학습은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제

가운데 독서치료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의 주제(교과과정(교육적·학문적 관점), 도서관(실전적 관점))를 활용하여 독서치료 관련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나열하였다.

4.1 독서치료 관련 현황조사

4.1.1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 현황

교육적·학문적 관점에서 독서치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에 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된 공공 데이터 포털(교육부, 2017),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로부터 문헌정보학이 개설된 대학명을 탐색하여 수집하였고, 이들 가운데 '문헌정보학'으로 명칭화되어 있는 3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⁷⁾를 선정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조사는 각 대학의 웹사이트로부터 제공하는 정보들(교과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서 등)을 가지고 독서치료와 관련된 혹은 독서치료를 의미 하는 키워드(독서치료/독서요법, 심리치료, 독서 치유, 상황별 독서목록 등)를 모두 적용하여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을 탐색 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독서치료와 관련성이 없는, 혹은 독서치료가 적용되지 않은 교과목으로 구성된 대학을 제외하기 위해

7)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부 전국 문헌정보학과 취업률'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32곳을 수집하였다. 서울/인천/경기 14곳, 충북 2곳, 대전/충남 4곳, 대구/경부 3곳, 전북 2곳, 광주/전남 2곳, 부산/울산/경남 5곳이었다.

키워드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4개의 대학이 발견되어 이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이 다수 개설된 2개의 대학을 포함하여, 총 28개 대학의 34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표 7〉 참조).

‘독서치료’를 정확하게 명칭화하고 독서치료에 대한 목표와 의의를 도입하여 전문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총 2곳으로, 교과목명이 모두 ‘독서치료’로 정립되어 있었다. 이외에 독서치료 수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독서치료의 성격과 학술적 관련성을 가진 과목의 여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교과목의 특성과 목적, 방향성 등을 추가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 검토는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마다 동일된 명칭이 다수 존재하고 각각의 교육 방향과 목적, 적용 내용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에, 직접 수작업으로 의미적 확인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헌정보학에서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주된 교과과정은 총 6개의 대

학에서 7개 교과목(‘독서치료’를 포함하여 ‘청소년 독서교육’, ‘독서교육의 실제’, ‘독서교육(론)’이 개설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7개의 교과목에서는 독서 증진을 위해 도서 선정부터 독서의 방법(기본 개념과 원리, 독서 기술, 계획 등), 독서치료의 각종 사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학습하는 데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두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들 교과목에 대한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2학년(3개 과목), 3·4학년(각각 2개, 2개 과목)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독서치료’ 전문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독서치료를 독서 교육의 과정 및 일부이자 도서관 봉사(서비스)의 하나로 다루며 독서교육이라는 종합적인 강의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⁸⁾

첫 번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 치료 관련 교과과정 현황조사를 통해서 독서치료 교과목은 일부 대학(6개 대학, 전체의 21%)에 개설되어 있어 전문적·학문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4개의 대학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설되어 전달하며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표 7〉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 현황조사

검색 키워드	상세 교과목 키워드	개설 수	상세 교과목명(개수)
독서	독서	2	독서학 개론(1),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1)
	독서 지도	21	독서지도(5), 독서지도론(14), 독서지도 실습(1), 독서지도 입문(1)
	독서 교육	9	독서교육(2), 독서교육론(5), 독서교육의 실제(1), 청소년 독서교육(1)
독서 치료	독서 치료	2	독서치료(2)
독서 요법	독서 요법	0	

8)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계획서에 의하면, 독서치료는 ‘독서교육(론)’이라는 15주의 강의 가운데 1주만(13주차) 개설되어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3장의 설문 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부분적 근거이자, 문헌정보학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에게 독서치료 관련 정보 학습 및 습득 경로가 부족한 이유의 하나로 살펴볼 수 있다.

4.1.2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현황

실전적 관점에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프로그램, 독서 목록 등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의 범주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발표된 '국가도서관 통계'를 활용하여 1,826개의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대학 도서관 포함)를 일차 수집하였고, 이들 가운데 작은 문고, 폐관 도서관,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을 제외하여, 총 1,153개의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웹사이트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153개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의 개설 및 활용 가능, 운영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였다. 그 결과, 1,153개 도서관 가운데 웹사이트가 미개설된 곳은 23개, 리모델링을 하거나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26개의 도서관이 발견되었다. 이들 도서관을 제외하고 총 1,104개의 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독서치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독서치료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 도서관 웹사이트 카테고리(독서(문화) 프로그램

(컬렉션, 북 큐레이션), 문화강좌·행사, 평생교육, 도서관 자료·정보 등)를 활용하여 독서치료(독서요법), 심리/마음 치료, 독서 치유, 도서(책/북) 테라피, 상황별 목록, 독서치료/치유 목록 등의 키워드로 탐색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 기간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정하여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성격, 유형, 진행 방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1,104개관 가운데 1,045개의 도서관에서 독서치료와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와 관련성을 보여주는 총 59개관⁹⁾(약 5%)을 최종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의 현황에 대해 상세 조사하였다.¹⁰⁾

총 59개의 도서관을 바탕으로 먼저, 독서치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49개의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8개의 도서관에서는 독서목록(영상 목록 1개 포함)을, 그리고 1개의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과 목록을 동시 운영 및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독서목록에 대한 상세 설명은 중복으로 수치가 입력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의 합계는 50개관, 목록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합계는 9개관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들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독서목록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관점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하였다.

9) ① 1,153개관(작은 문고, 폐관 도서관, 학교 도서관,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전국 공공도서관) - ② 49개관(웹사이트 미개설·미운영) - ③ 1,045개관(독서치료 미운영) = ④ 59개관(독서치료 관련 및 운영 도서관)
10) 59개의 도서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서치료 관련 기타 방식으로 1개 도서관에서는 '북 테라피'로 명칭화하여 이용자 상담 및 도서 추천을 유튜브로 독서치료를 운영하고 있었다.

1) 독서치료 프로그램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6개의 항목(① 유형, ② 기간, ③ 대상(연령대), ④ 자료유형, ⑤ 진행 방식, ⑥ 담당)을 조사하였다 (<표 8> 참조).

<표 8> 도서관의 독서치료 현황 조사 - 프로그램

		개관 수	비율(%)
① 유형	일회성	46	92
	지속성	4	8
② 기간	1회	16	32
	2~4회	5	10
	5~9회 (1~2개월)	19	38
	10회 이상 (3~11개월)	10	20
③ 진행 방식	대면	19	38
	비대면 (온라인)	28	58
	혼합	3	6
④ 대상 (연령)	아동·어린이	4	8
	청소년	1	2
	성인	43	86
	전 연령	2	4
⑤ 자료 유형	도서	50	100
	(그림책)	(12)	(24)
⑥ 담당자	강사	47	94
	사서	3	6

우선, 프로그램 진행의 지속성을 ① 유형과 ② 기간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한 도서관은 4개관으로, 이들을 제외한 46개관에서는 일회성 행사, 강좌의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은 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단발성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간은 1~2개월 주 1·2회의 운영(5~9회)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1회 강좌가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2019년 발생한 COVID-19의 영향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③ 진행 방식은 비대면(온라인/Zoom)으로 다수 진행되고(58%)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일부 도서관에서는 대면으로 전향하여 운영하거나,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④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본 조사 결과 성인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86%), 그 외는 어린이와 초등학생 저학년(8%), 전 연령(예를 들면 가족), 청소년의 순으로 대상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장애아동(발달 장애, 지적장애), 중장년 성인(60세 이상)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을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의 목적과 목표에 적합하게 ⑤ 자료유형을 도서로 기본 적용하고 있었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책'을 제목에 포함하여 각종 그림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끄는 ⑥ 담당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서는 프로그램 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고(6%), 각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다수의 다양한 직종의 강사(독서심리/치료 지도사, 심리학·정신의학·인문학 교수, 작가)가 초빙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2) 독서치료 관련 독서목록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현황조사는 독서치료 관련 독서목록을 제공하는 9개의 도서관

을 대상으로 4개의 항목(① 유형, ② 기간, ③ 대상(연령대), ④ 제공 방식)에 관해 조사하였다(〈표 9〉 참조).

〈표 9〉 도서관의 독서치료 현황 조사 - 독서목록

		개수	비율(%)
① 유형	일회성	2	22.2
	지속성	7	77.8
② 기간	비정기	5	55.6
	정기(매년)	4	44.4
③ 대상 (연령)	아동·어린이	2	22.2
	청소년	3	33.3
	성인	4	44.4
④ 제공 방식	텍스트 파일 (pdf, excel 등)	7	77.8
	사진파일	1	11.1
	영상 파일	1	11.1

우선, 독서목록의 발행 및 제공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서목록의 ① 유형과 ② 기간을 조사하였다. 일회성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은 2개관으로 확인되었고, 앞서 프로그램 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4개의 도서관에서는 독서목록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었다. 이 외 3개의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형식(사진·영상 파일)의 목록을 웹사이트에 고정시켜 비정기적으로 개발 및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목록의 ③ 대상(연령대)은 성인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 아동·어린이 순으로 범주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④ 제공 방식은 대부분 텍스트 파일로 개발되어 웹사이트에서 첨부파일로 전달되고 있었고, 이외는 '사서 북 큐레이션' 카테고리에서 감정, 증상, 행위 등의 키워드와

함께 도서의 책 표지를 사진으로 나열하여 제공하거나 영상 파일로 제공되고 있었다.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현황을 조사하여 살펴본 결과, 독서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서관(전체 약 5%)이 존재하는 반면, 전혀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이 조사 대상 전국 공공도서관의 95%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도서관도 매우 낮은 비율(각 4.34%, 0.7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와 결과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독서치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반수의 도서관에서는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적지만 도서관마다 개발하여 제공되는 독서목록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어 독서치료에 대한 활동의 지속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 치료가 전반적으로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는 독서치료에 대한 함축적이지 부분적 결과이지만, 앞서 대학생들이 독서 치료 프로그램과 목록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려웠던 이유, 경험을 위한 접근 경로가 부족했던 이유 등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독서치료 관련 교과과정에 이어 언급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다각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독서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단히 나열하였다.

4.2 독서치료의 발전 방향

COVID-19와 각종 사회적 현상 등으로 현대인의 심리적·정서적 치료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반면, 문헌정보학을 학습하는 대학생들에게 독서치료 관련 정보 및 지식은 아직 확산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독서치료에 접근하여 활용 가능한 경로나 도구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단편적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 치료 인식·현황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을 적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2.1 특성화된 학제적 교과과정 개발

선행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간 독서 치료 관련 강의에 관한 관심과 운영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4.1장의 인식조사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학문적·전문적인 독서치료 교과과정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6.25% 개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은 독서치료를 위한 정보자원 선정·이용,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참여자(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심리학적 이론과 과정 이론, 각종 진단평가 도구, 치료자(참여 자)와 치료 대상자의 특성 및 행태 분석, 독서치료에 수반되는 각종 치료(미술 치료, 놀이 치료 등)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이명희, 2014).

독서치료는 참여자의 심리, 감정, 증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과 독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치료법으로, 인간의 심리부터 치유서 선정, 독서 과정, 자가 치유까지 관련된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독서치료와 학문적·교육적·연구적·전문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분야는 다양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들 영역을 모두 교수하거나 상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는 하나의 학문 분야에서 복잡하고 여러 영역을 다루는 독서치료 전반을 독립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서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선, 학문 간의 연계에 앞서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 영역에 대한 확립과 문헌정보학이 가진 특유의 전문성을 유지 하며 독서치료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교수해야 한다. 현재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에서 독서치료 관련 정보 및 지식 전달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독서치료는 도서관, 도서, 독서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꼭 다뤄져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예를 들면 독서교육/지도에 대한 종합적 개념,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 이용, 관리, 이용자 서비스 등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함께 독서치료의 활용 및 평가 방안,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서비스, 치유서, 참여자) 등과 같은 독서치료 관련 전문 개념 전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서, 학제적 접근으로 학문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타 학문과의 상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서 치료는 문헌정보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시사점과 학습 이론, 실제적 학습 및 적용에 따른 경험적 지식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심리학에 서는 심리 진단평가 도구에 대해, 문학 에서는 도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배경에 대해, 정신의학에서는 병리 증상과 감정 등에 따른 인간의 행동 유형 등 분석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부분적인 예시지만, 이처럼 독서치료와 관련성을 가진 학문 간의 장점을 적용시켜 문헌정보학 영역과 특성화된 합동(연계) 교과과정을 개발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교육 효과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학문 간의 타협과 협동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에 학문의 교과과정을 복합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이 관점은 독서치료 관련 학문 간의 상세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4.2.2 다종다양성에 기반한 독서치료 목록 및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는 참고 봉사의 일화이자, 사서와 이용자, 독서자원의 상호 작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독자 상담의 특수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이기명, 이제환, 2011; Monroe, 1971). 그리고 이들은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관련 다양한 활동(치유서 개발 및 제공, 독서목록 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서비스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4.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정기적이고 일회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동은 활발하지 않고, 지속성 결여와 함께 진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치료에 접근하는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혹은 독서목록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도서(치유서)를 검색하거나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치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독서치료는 참여자의 상태 및 증상, 감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해야 하기에 단기간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접근과 제공이 아닌 정기적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독서치료 기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와 실효성·접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치료의 주최자이자 운영자(도서관·사서)에 의해 지금까지 축적된 다방면의 경험을 토대로, ① 향상된 질의 각종 정보자원 개발하고, ② 공신력을 지닌 전문가(전문사서)의 참여로 인간의 심리·상황·감정 등에 따른 공인된 독서목록(1)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③ 독서치료 참여자의 요구와 대상의 다양성에 적용 가능한 전문화된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비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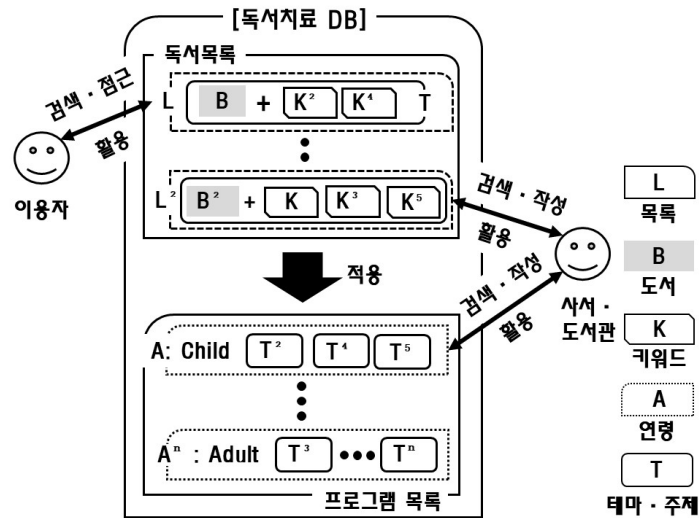
4.2.3 독서치료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현재 독서치료 관련 정보 검색시스템 혹은 DB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치유를 위한 도서

11)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제공하는 도서(치유서)에 대한 정확한 서지 정보와 다수의 키워드가 부여 및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독서목록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 정보는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사립 기관, 교육 정보원 등)에서 각자 작성한 독서목록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정보는 각 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독서치료 참여자는 원하는 정보(치유서,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 도서관별 독서목록을 각각 검색해야 하고, 독서치료 운영자(도서관과 사서)는 독서치료 진행을 위한 정보적 자원(도서, 목록, 프로그램 등)을 각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활용 및 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서 치료 참여자와 운영자가 원하는 정보적 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독서치료 참여자와 운영자 모두 활용 가능하며, 독서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정보적 자원의 이용·공유·관리를 목표로 하는 독서치료 통합 DB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2〉 참조).

독서치료 참여자는 자신의 문제에 관해 직면하고 파악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직접 독서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치유를 진행한 다.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독서치료는 자가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참여자가 도서를 검색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그러나 3.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소수의 도서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어 독서치료 진행 시 참여자가 독서목록 혹은 치유서에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여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관점은 참여자가 각각의 다른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독서목록을 탐색하여 치유서에 접근하기보다 이들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도서관에서 개발한 목록을 공유하며 검색 및 이용 가능한 DB가 개발 되어 제공된다면, 참여자는 원하는 치유서 에의 접근 용이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독서치료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의 예시

독서치료에 있어 책과 도서관·사서의 주도적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의 운영을 위해 치유서 선정과 키워드 부여, 목록 개발을 시행하고, 이들을 독서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시 참고하여 활용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정보적 자원은 각각의 도서관에서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로 도서관 간의 공유는 하고 있지 않다.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추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과 실무 기법,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정보적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축적된 다방면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면, 해당 도서관뿐 아니라 독서치료를 준비하는 타 도서관에서도 향상된 질의 콘텐츠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성화 및 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통합 DB는 경험 DB로 활용되며, 독서치료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올바르게 각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여 제공하는 최적화 된 정보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대인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처가 사회 현상이나 다양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의 상처를 살펴보는 개인 심리학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참여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료가 널리 알려지면서 도서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참여자, 책, 독서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도서(치유서)를 선정하여 독서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책 속의 주인공과 상황 등에 자신을 대입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이다. 독서치료에 있어 도서 선정과 활용, 도서 과정은 필수요소이자 중요한 과정으로, 이들 정보적 자원들(치유서, 목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사서와 도서관은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주도하여 개발 및 기획하는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프로그램이 점진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이기명, 이제환, 2011).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으로 도서와 독서에 강하고(김현숙, 강보라, 2020), 책과 도서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상황·병리 증상 등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에 있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 치료’, ‘도서(치유서)’, ‘정보 제공자 및 운영자(사서·도서관)’와 매우 밀접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독서치료의 발전 방향에 관해 나열하였다.

우선, 독서치료 관련 인식조사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와 관련된 키워드, 5개의 주제(도서, 독서치료, 교과과정, 도서관, 기타)를 토대로 개괄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로 진행된 본 조사에서 참여 대학생들은 독서치료에서 사서와 도서관

의 역할의 중요성, 독서치료 관련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치유서와 독서치료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았고, 교육적·학문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로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조사에 이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의 현황을 학문적·실전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독서치료 관련 교과 과정과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동(독서 목록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독서치료 관련 교육과정 현황은 국가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며 교육부가 인정한 문헌정보학도가 개설된 4년제 대학을 바탕으로 독서치료 관련 키워드를 탐색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전문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개 대학으로, 이 외 5개 대학에서는 독서치료를 관련 교과목의 부분으로 전달하며 학습하고 있었다. 이는 독서치료 관련 교육과정의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학문적으로 미흡하며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두 번째, 실전적인 관점으로 도서관에서 독서치료의 현황을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독서목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도서관 통계를 활용하여 1,104개 도서관을 수집하였고, 이들 도서관 웹사이트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제공된 독서치료 관련 정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독서치료와 관련성을 가진 도서관은 총 59개관(전체 5%)이었다.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독

서목록에 좀 더 상세하게 접근하기 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6개의 항목(① 유형, ② 기간, ③ 대상(연령대), ④ 자료유형, ⑤ 진행 방식, ⑥ 담당)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4개의 항목(① 유형, ② 기간, ③ 대상(연령대), ④ 제공 방식)으로 구성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따른 전체적인 결과로, 독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서관이 소수 존재하는 반면, 전혀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이 조사 대상 전국 공공도서관의 95%,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반수의 도서관은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적은 수의 도서관에서 독서목록을 개발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가 아직 본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현재, 독서치료를 보다 본격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학문적 관점과 실전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구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우선, 학문적으로 '특성화된 학제적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 독서 치료와 학문적·연구적·전문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영역은 다양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들 영역을 교수하거나 상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는 하나의 학문 분야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독서치료 전반을 독립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치료 교육과 지식 전달은 문헌정보학이 가진 고유의 전문성과 함

게, 다양한 시각과 각 학문의 전문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계기와 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여러 학문 간의 연계와 융합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독서치료에 대한 높은 교육 효과와 가치를 창출시켜 전문 인력 양성에 토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실천적으로 '다종다양한 독서치료 독서목록 및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독서 치료 참여자와 운영자의 관점이 모두 적용된 '독서 치료 통합 DB를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한다. 독서 치료 통합 DB에서 각 도서관에서 개발한 독서 치료 독서목록 및 프로그램이 한 공간에서 제공된다면, 독서 치료 참여자에게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적 자원(프로그램, 독서목록,

치유서 등)에의 접근 용이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운영자인 도서관과 사서에게는 향상된 질의 콘텐츠와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치료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 치료의 활용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단편적이지만 문헌 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 치료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다음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 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앞서 언급한 발전 방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서 치료 통합 DB 구축을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7.12.31.). 전국 문헌정보학과 취업률 현황. 공공 데이터 포털.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71027/fileData.do>
- 김세영 (2020). 독서 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2014년~2020년 논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 김수경 (2010).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 치료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241-268.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241>
- 김순화 (2004). 공공도서관의 독서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울산남부 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 김정근 (2005). 독서 치료의 현 단계. 도서관문화, 46(2), 46-49.
- 김현숙, 강보라 (2020).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59-81.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 문화체육관광부 (2021.10.27.). 국가도서관통계 전국공공도서관정보. 공공 데이터 포털.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72611/fileData.do>

- 백재은 (2016).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현황 및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165-184. <https://doi.org/10.4275/KSLIS.2016.50.4.165>
- 송승섭 (2004).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적실한 '독서치료' 연구와 강의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21-141. <https://doi.org/10.4275/KSLIS.2004.38.1.121>
- 이기명, 이재환 (2011). 치료적 독자상담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53-72. <https://doi.org/10.16981/kliss.43.1.201203.53>
- 이재환 (2009).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5-29. <https://doi.org/10.16981/kliss.40.4.200912.5>
- 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황금숙 (2005).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7-130.
- LISTOPIA (2011).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Available: <https://www.listopia.net/glossary/category/45911>
- Reitz, J. M. (2014). 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ODLIS.
Available: http://products.abc-clio.com/ODLIS/odlis_b
- Young, H.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ae-Eun (2016). The study about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alternative formats for bibliotherapy of the disabled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165-184. <https://doi.org/10.4275/KSLIS.2016.50.4.165>
- Hoang, Gum-Sook (200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117-130.
- Hong, Hyun-Jin, Noh, Young-Hee, & Kim, Dong-Seok (2021). A study on status and necessity of the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Kim, Hyun-Sook & Kang, Bo-Ra (2020). A study o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s LIS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4), 59-81.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 Kim, Jeong-Geun (2005). Current states of bibliotherapy. *KLA Journal*, 46(2), 46-49.
- Kim, Sae-Young (2020).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s. Master's thesis, Dankok University.
- Kim, Soo-Kyoung (2010). The task of bibliotherapy for the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241-268.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241>
- Kim, Soon-Hwa (2004). A Study of the Operation on the Bibliotherapy Program in Public Libraries: A case study of Ulsan NamBu Library. Doctoral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Jae-Whoan (2009).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in Korean library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5-29.
<https://doi.org/10.16981/KLISS.40.4.200912.5>
- Lee, Kee-Myung & Lee, Jae-Whoan (2012). Theoretical foundations and a conceptual model of therapeutic readers' advisory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53-72. <https://doi.org/10.16981/KLISS.43.1.201203.53>
- LISTOPIA (2011).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vailable:
<https://www.listopia.net/glossary/category/4591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October 27). National Library Statistics National Public Library Information. Public Data Portal. Available:
<https://www.data.go.kr/data/15072611/fileData.do>
- Ministry of Education (2017, December 31). The Employment Ra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in Korea. Public Data Portal. Available:
<https://www.data.go.kr/data/15071027/fileData.do>
- Song, Sung-Seob (2004). A case study for relevant study and lecture on "bibliotherap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121-141. <https://doi.org/10.4275/KSLIS.2004.38.1.121>

[부록 1] 독서치료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독서치료(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응답				
도서	①	학생의 1년 독서량을 선택해주세요.	1~3권	4~7권	8~12권	12권 이상
	②	책으로 자신의 문제(정신/심리)가 치료된 적이 있다. <예로 대답한 경우, 도서의 서명을 적어주세요>	예		아니오	
	③	치유/치료가 된 책에 대한 정보는 000에서 얻었다.	(1) 도서관 (2) 서점 (3) 지인추천 (4) 광고 (5) 기타			
독서치료	④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⑤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에 대해 알고 있다.	예		아니오	
	⑥	치유서에 대해 알고 있다.	예		아니오	
	⑦	독서치료 도서목록에 대해 알고 있다.	예		아니오	
수업	⑧	독서치료에 관련된 수업(강의)을 수강한 적이 있다. <수업을 들었다면 수강한 기관(수업)명을 적어주세요>	예		아니오	
	⑨	독서치료 관련된 수업(강의)을 수강하고 싶다.	예		아니오	
도서관	⑩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⑪	도서관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오	
	⑫	도서관에는 독서치료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주세요>	예		아니오	
기타	⑬	기회가 된다면,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을 경험해보고 싶다.	예		아니오	
	⑭	독서치료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무엇이든 적어주세요.				

